

#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7>]한반도식물 자원화 남·북이 뭉친다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3.03. 00:01:00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6. 나카이...조선식물지를 넘어(하)

▷나카이박사의 조선식물지

나카이(中井) 박사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식물채집과 조사에 착수했던 시기(1913)는 일제가 한반도를 강제 합병한 이후 우리나라의 부원(富源)조사를 본격화하던 때였다. 나카이의 한반도 식물조사는 그의 학문적 호기심과

더불어 일제 강점기라는 이런 시대적 배경과 목적이 깔려 있었다.

국내 식물학계에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활약했던 식물학자 나카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특히 그가 필생의 업적으로 펴낸 '조선식물지'는 나카이가 세상을 떠난지(1952년) 5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높고 두터운 벽으로 남아 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남북공동의 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나카이의 조선식물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축탁연구원 신분으로 식민지의 부원(富源)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한반도 식물조사의 목적과 그 성과와 관련해 비판과 학술적 오류가 솔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그가 필생의 업적으로 남긴 조선의 식물지는 높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카이가 남긴 6백여편의 논문 중 3백여편이 한국식물에 관한 것이었으며 1914년 제주를 시작으로 지리산, 백두산, 금강산, 울릉도 식물을 차례로 보고했다. 그가 1945년까지 한반도를 샅샅이 훑으며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조선식물지'이다.

식물지(誌)는 사진을 싣는 식물도감과는 달리 식물의 특성이나 모양 등을 자세히 알 수 있게 아주 가는 붓으로 중요부분을 그리고 학명, 용도, 분포지 등 해당식물에 대한 분석내용을 영어로 기술한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각 개인의 능력과 상세한 정보가 담긴 일종의 신상명세서.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많은 인적자원이 있어도 이런 신상명세서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뽑아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때문에 종합식물지는 자생식물의 연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기초자료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로 된 식물지가 없는 개발국가는 극히 드물며 가까운 중국도 수십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최근 완성을 보았다.

우리나라에 이같은 식물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소속의 일본 식물학자가 제주를 비롯한 한반도를 샅샅이 뒤지며 1945년까지 30여년에 걸쳐 완성한 것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나카이박사다. 나카이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반도를 아우르는 종합식물지는 만들

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이미 초판을 펴낸데 이어 증보판을 발행했지만 영어로 된 식물지가 아님은 물론 남한 식물에 대해서는 나카이의 식물지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나카이가 필생을 매달린 '조선의 식물'연구가 한라산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라산연구소 고정균 박사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제주 근대식물연구 1백년의 기록이 바로 한국의 식물사로 귀결된다"고 한다.

#### ▷ 종합식물지 왜 중요한가

지금부터 꼭 3년 전인 2001년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는 국내 자생식물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국내 식물학계에 내로라 하는 저명 인사들이 두루 참석해 열기가 매우 높았는데, 특별히 눈길을 끄는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한반도 종합식물지 발간'이란 제목의 국가단위 프로젝트였다. 우리나라 식물학자들을 옥죄고 있던 바로 그 과제였다.

종합식물지가 새삼 관심을 끈 것은 자생식물을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자료임에도 국내에는 아직껏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학계로서는 반드시 완성해야 할 자존심이 걸려 있는 과제였다.

우리민족은 자생식물자원을 식용, 약용, 목재용, 섬유용, 원예용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생식물을 정확히 분류, 동정하는 노력이 미약했으며 여기에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과학기술을 접목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자생식물의 잠재적 가치를 상당부분 사장시킨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 남북 식물학자들 뭉쳤다

국내 식물학자들의 이같은 오랜 숙원을 푸는 원년이 바로 2004년이 될 전망이다. 남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식물조사와 종합식물지 발간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남북간 합의안에는 북한의 식물학자들이 올해안에 한라산을 찾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 상반기에 남측 학자들이 백두산 일대를 먼저 방문한 이후 교차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공동 프로젝트다.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남북 분단 이후 과학자들간 학술교류의 물꼬를 트는 점에서도 학계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북측 연구팀이 남측 조사의 핵심 지역으로 지리산 뿐만 아니라 한라산의 난대·아열대 식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식물학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한반도 식물학계로서는 자존심이 걸려 있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이다. 2000년 발족한 과학기술부 자생식물사업단의 첫 과제가 바로 종합식물지 발간이다. 올해가 바로 그 원년이 되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남북이 식물지 작성이란 공동목표를 정하고 오는 5월부터 남북간 교차방문의 물꼬를 트기로 한 것이다. 나카이의 한반도 식물 조사가 제주에서 시작된 것처럼 다시 1백년만에 제주가 남북식물학자들의 관심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음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사진설명]나카이가 펴낸 '조선삼림식물편(8~10집 36쪽)'에 실린 한라산 식물조사 당시의 모습. 한라산 정상부근의 털진달래와 구상나무 군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뒤편에 한라산 정상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